하루를 시작하며

여름은 가고 있지만 문제는 남는다

홍 리 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어릴적 필자의 여름은 등물, 부채, 구미호, 미숫가루 그리고 진한 여름꽃 향기와 그 주변에 있는 벌과 나비, 모기와 잠자리 그리고 매미소리들로 기억된다. 가끔씩 친구들과의 물놀이, 그네타기, 동네 운동회는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과 당당히 맞서는 동네 밖 풍경이었다.

지금은 에어컨, 배달음식, 잦은 샤워, 무서운 영화 등 실내에서 더위를 피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가족 중심의 여름휴가와 여름학원에서의 경쟁학습으로 여름을 즐기는 여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래서 벌, 나비, 모기, 잠자리떼를 찾아보기 힘들고 매미소리 대신 사람들 싸우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의 타는 여름은 물부족으로 결과하면서 제주시 동-서부 중산간 마을의 제한 급수와 서귀포시 일부지역의 예고 없는 단수사태로까지 이어져 도민들이 고충을 겪기도 했다. 향후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지면 제주는 올해보다 몇 배 더 큰 가뭄과도 만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생존의 절대필수요소인 물부족이 미래 불안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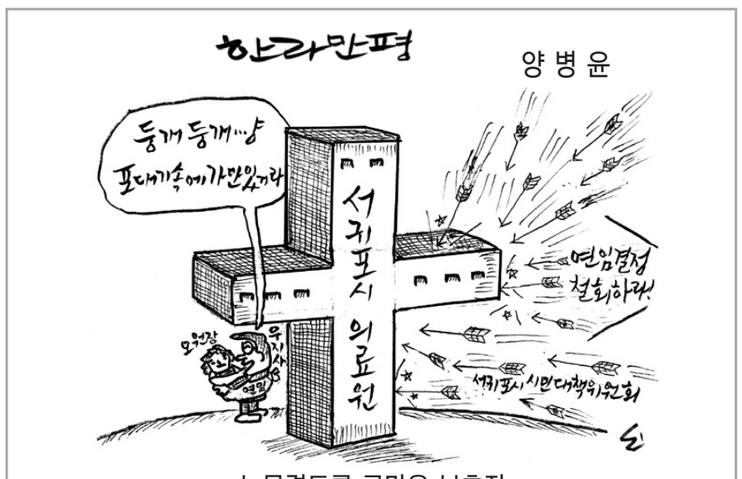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오랜 농업국가이며 특히 여름은 1년 농사의 결정적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의 물부족은 곧 식량확보에 직결된다. 즉 여름의 농사는 지난 가을이나 봄에 파종한 작물을 수확하고, 가을 작물을 파종하거나 이식하는 등 가장 바쁜 농번기에 해당되며 올해처럼 오랜 가뭄이 지속된다면 농사를 포함한 제주의 1차 산업의 위기는 제주지역 생존에 중차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문제에도 차질을 빚을 게 당연하다. 그만큼 물 문제는 제주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총체적인 문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물은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에너지 생산에도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 등을 직접 움직이게 하거나, 이 기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물은 절대 필요해 물의 위력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 전체를 담보하는 원천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최근 비가 와서 두달여간의 가뭄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고마운 비 덕분에 당장의 물부족 문제는 긴급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주가뭄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이미 제주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물을 만들고 저장하는 중산간 일대가 파괴됐고 이곳 골프장들의 농약 과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제주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중한 물을 온존히 관리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안의 원칙과 그 중심은 무분별한 중산간 개발 중단과 엄격한 보존관리가 절대적이다. 이미 많은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오름군의 경관훼손과 생태축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제주도민을 위한 생명수인 물이 오염되며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선보전 후개발'을 지속현실화하는 제주도정의 입장은 어떤 지도자가 자리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원칙과 가치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달간의 혹독하고 맹렬한 여름기운이 지금은 비와 함께 줄어 들어 다행이다. 자연은 늘 그렇게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법칙대로의 베풀기와 배려로 감싸준다. 다만 사람은 그렇게 베풀어준 자연의 배려 깊음과 지속가능한 자연의 바람을 무시한 채, 개발과 독점기술을 앞세운 자본의 논리와 행위로 자연을 차별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다음엔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날까.

맹위를 떨친 여름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여름 중이다. 여름은 가더라도 물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1988. 12. 5 등록번호 가-81호(日刊)
1989년 4월 22일 창간
한라일보
우 690-711 제주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구. 제주시 삼도1동 568-1)
발행·편집·인쇄인 강만생 편집국장 오태현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대표전화 (064)750-2114 독자제보 (064)750-2214
<월정요금 10,000원, 1부 500원> FAX (064)752-9790

편집국	논설위원실	(064) 750-2152	독자서비스센터(광고영업국)		(064) 750-2330
	편집부	750-2250	구독신청·배달	동제주센터	725-1137
	정치부	750-2290		서제주센터	755-6119
	경제부	750-2223		용담센터	757-5959
	사회교육부	750-2235		신제주센터	744-8259
	제2사회부	732-5552		노형센터	745-0611
	문화체육부	750-2280		화북센터	759-4860
	사진부	750-2260		아라센터	752-9906
광고·접수	광고영업국(본사)	(064) 750-2828		외도센터	713-7999
	FAX	752-7448		구좌센터	782-5318
	서귀포지사	732-5553		조천·함덕센터	784-4724
	FAX	732-5559		애월센터	742-5606
	서울지사	(02) 722-6567		한림·한경센터	796-0017
	FAX	(02) 743-6509		서귀포센터	733-5277
	부산지사	(051) 894-0163		서귀남부센터	733-5237
	FAX	(051) 896-7500		신서귀센터	739-9741
				중문센터	738-9695
				예래센터	738-2628
				성산·표선센터	784-8464
				남원센터	764-5164
				안덕센터	792-5122
				대정센터	794-1017

일본지사(03)-5612-2703 FAX: (03)-5612-2704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마음의 窓

- 청소년 여러분! <79>

지구의 보복

2만 5000년 전 지구는 지금보다 평균기온이 5도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도 서늘해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서 캐나다, 미국, 유럽의 대부분이 1000m 정도의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늘면서 지구 온난화로 빙하 줄어들어 당면 과제는 대체에너지 개발"

그런데 국제 환경 보호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베링의 빙하가 녹아 130㎢나 줄었다고 합니다.

바로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늘어 지구가 온난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 환경계획(UNEP)도 지난 1995년의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 추세로 계속되면 오는 2100년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최고 95cm 올라가고, 지표의 온도도 섭씨 3.5도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지역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고, 기후 균형도 무너져 가뭄, 태풍, 혹서 등 기상 이변으로 갖가지 재난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후 변화 문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경고하면서,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대로 가면 오염된 지구가 인류에게 무서운 보복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에너지 사용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더불어 사는 생활의 지혜·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

선제적 대응으로 재선충병 차단해야

일본 3대 절경으로 꼽히는 미야기현 마쓰시마. 소나무가 아름다워 '마쓰시마(松島)'란 이름이 붙었다. 섬 곳곳의 소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 가고 있다. 바로 재선충 때문이다.

일본의 재선충병은 1905년 나가사키현에서 처음 발생했다. 최근에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 소나무숲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홋카이도(北海道)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소나무숲은 쑥대밭처럼 변했다.

재선충병은 소나무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에 감염되면서 시작된다. 재선충은 0.6~1㎜의 크기로 나무조직 내에 살면서 수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나무의 에이즈'로도 불린다. 매개충의 확산 차단을 위한 항공·지상 약제 살포, 재선충·매개충을 동시 제거하기 위한 고사목 벌채 및 훈증(燻蒸) 등이 고작이다.

우리나라에선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됐다. 2004년엔 제주시 오라골프장 인근 19그루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2005년 44그루, 2006년 52그루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2007년 들어 상황은 반전됐다. 2007년 28그루, 2008년 16그루, 2009·2010년 각 15그루에 이어 2011년엔 13그루로 감소했다.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대대적인 방제활동이 시작된 덕분이다.

최근 재선충병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31그루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최악의 가뭄과 함께 유례없이 기승을 부린 폭염이 확산을 부채질했다. 발생 장소 또한 제주시내권을 벗어나 서귀포, 구좌·애월읍 지역 등으로 무차별 확산되는 형세다.

전국적인 상황과도 궤(軌)를 같이 한다. 국내 재선충병 피해는 2005년 56만여 그루에서 2006년 40만여 그루, 2007년 18만여 그루, 2008년 10만여 그루, 2011년 1만2000여 그루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한 때 500억원을 웃돌던 방제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다. 2014년을 기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려던 제주자치도의 계획도 수포가 됐다. 과감한 인력·예산 투입과 함께 지역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방제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세계농업유산 도전 제주밭담의 과제

제주밭담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登載)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농업유산 보존·관리 및 연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농업유산 관련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선 무엇보다 제주밭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등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GIAHS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한 한·중·일 역할론과 함께 교류와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밭담을 보존·관리해 나가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이날 강승진 박사(제주발전연구원)는 '제주밭담농업시스템과 액션플랜'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밭담은 화산섬의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克服)하기 위한 독특한 농업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파풍 효과와 농경지 경계를 비롯 토양유실 방지와 생물종 보존 등의 역할을 하며 제주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 훗날에도 제주밭담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농업환경 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밭담이 점차 훼손(毁損)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보존·관리대책이 없으면 파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다. 따라서 강 박사는 ▷밭담의 가치 인식 확산 ▷자발적 참여 유도 ▷제도적 지원이란 과제 아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주밭담을 '오래된 미래'로 가꿔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크숍에선 다수의 세계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노하우를 배우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세계농업유산으로 선정된 곳은 25개소로 중국(8곳)과 일본(5곳)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농업유산이란 브랜드를 활용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이다.

제주 밭농업과 밭담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다. 또 밭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그 기반요건인 밭담의 보존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선 행정 및 지역주민의 역할 분담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농업유산 등재는 그 결과물로 돌아올 것이다.

고개숙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회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의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

웅진석재건설
WOONGJINSTONE & CONSTRUCTION
"컬러판석/경계석"
다양한 색상의 판석/경계석
보는 즐거움 "몽돌" 정원석
더욱 돋보이는 제주의 고유함
취급품목 컬러판석/경계석, 재활용판석/경계석, 나이테판석, 현무암판석, 부정형판석, 가공몽돌, 기타 가공 석재
컬러판석/경계석 적/청/황/회/황토 색상선택가능
몽돌
재활용판석/경계석
나이테판석
현무암판석
부정형판석
구입문의 : 064)794-5548/010-5034-9954
FAX :064)794-5546

방수
특수방수 강정건설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직접시공하며, 특수공법으로 진단에서 시공까지 전과정을 책임집니다. 이제부터 방수·그라우팅은 하자보수 전문업체인 저희 강정건설과 함께 하십시오.
제주 전지역 무료견적·상담환영
노후건물 보수를 위한 부위별 적용범례
누수진단/설계상담/방수재료 판매/하자보수전문업체
특수방수 강정건설
☎(064)759-1882 FAX.(064)759-1883
010-9699-1881 직원모집 : 0명
http://www.gangjung.co.kr

연동탑365요양원
직원모집

모집직종	자격 및 제출서류
사무국장	1.노인요양시설 경력자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관련자격증 사본 5. 주민등록등본
요양보호사	1. 이력서 2. 자격증 사본
조리원	1. 이력서 2. 관련자격증 사본

어르신 입소 문의 상담안내	
요양원	어르신 총 정원(97명)
주간보호	어르신 총 정원(20명) 이용시간 : 월~토(8시~18시)

064)749-3651~2
H.P : 010-4602-3603
신제주 구.문화칼라 사거리 뒷 블럭